

일 주 문



동국발전기금 기부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11월 29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본관에서 동국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겨울한문학당 개최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1월 12~16일 하동쌍계사 및 인근 문화체험장에서 2013년 겨울 어린이 한문학당을 개최한다.



회암교육장 및 사찰음식연구소 착공
의성 교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2월 22일 경내에 회암교육장 및 사찰음식연구소 기공식을 했다.



회암산림대법회 입재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12월 12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5000여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암산림대법회 입재식을 개최했다. 법회는 1월 13일까지다.

삼조·능원 스님 총무원장 표창



실악산 봉정암 주지 삼조 스님과 남해 보리암 주지 능원 스님은 12월 12일 특별분담금사찰로서 예산이 증액하고 사찰을 원만하게 운영한 공로로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자성과 쇄신 정책에 적극 부합해 지역 불교 발전에 기여했다"며 "모범적으로 사찰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조 총장, 대전·충남지역총장협 회장 선출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12월 6일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대전·충남지역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대전충남지역총장협의회회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로도 활동하며 임기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이다.

서강대 박사과정 홍진스님 등 3명 장학금 선발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보광)는 1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3년 조계종 장학승으로 홍진, 혜명, 진옥 스님을 선정했다. 홍진 스님은 서강대 대학원에서 '불교윤리와 생명'을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혜명 스님은 일본불교대학에서 '일본불교사' 박사과정, 진옥 스님은 인도 델리대학에서 '대승불교'로 박사과정 중에 있다.

“‘청년붐다’ 운동 통해 젊은 불교로”

우리는선우 신임이사장
고려대 조성택 교수 선임



불교 우호적인 청년 많아
정체성 심어줄 수 있다면
청년불자 성장 가능성 커

“청년 불자 양성이 우리 불교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우리는선우 이사장으로 취임하면 청년불교 운동을 주도해 갈 것입니다. 그동안 자비와 지혜는 불교를 대표하는 단어였지요. 저는 이런 이미지를 넘어 좀더 젊고 발랄한 불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0대 청년 불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불교 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사)우리는선우 이사장에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이에 선우는 12월 13일 정충동 우리함께빌딩 6층서 신임이사장 간담회를 가졌다.

신임 이사장으로 선정된 조성택 교수는 청년 불자 양성을 통해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갈 뜻을 펼쳤다.

조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불교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 이는 초교파적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불교도 종파가 여러 갈래로 이는 미국과 한국만이 유일한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변혁의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매우 혼란스러울 뿐”이라며 현재의 한국 불교를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재가불자 운동이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 선우의 역할은 매우 중요

하다. 조 교수는 청년불자 양성이라는 서원을 갖고 ‘청년붐다’ 운동을 펼칠 뜻을 밝혔다. “현재 청년들 중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불교에 우호적인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불교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청년 불자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 접근해 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불교가 젊고 발랄해져야 한다고 조 교수는 말한다. 그래서 현재의 불상의 모습도 좀 더 젊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 불상의 부처님 얼굴은 50~60대 얼굴이잖아요. 저는 불상의 모습도 20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고 발랄한 이미지가 필요하죠. 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는 방법도 매우 중요해요. 가령 제가 이끄는 고려대 불교 학생회에서는 ‘절 오빠’ ‘절 누나’ 이런 글씨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다니면서 포교활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학생회를 찾는 인원이 늘었어요. 젊은이들에게 유쾌하고 신선하게 다가간 거죠. 작은 아이디어지만 파급력이 컸어요. 이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젊은 불자들과 함께할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밖에도 조 교수는 우리는선우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군경 포교운동 확대 등을 구체화시켜 나갈 뜻을 펼쳤다. 이에 선우는 앞으로 TFT를 구성해 선우의 신년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들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신임 이사장 취임식은 2013년 3월 16일 날 진행된다.

한편 선우는 같은날 2013년 주요사업도 함께 발표했다. 내년에는 청년붐다 캠프, 불교인문과학 최고교 과정 개강, 선우장립 22주년 기념행사 및 후원의 밤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서울시 교육감 후보, 조계종 방문



문용린 후보는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이수호 후보도 12월 5일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신종일 기자

설법연구원 활동가 지원금 전달



제 9회 활동가지원금 전달식이 12월 12일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설법연구원(원장 동훈)은 수상자로 △이주민 활동가 바트보양 스님 △조계사장에이전법 법원 원심회 김장경 회장 △전은옥 합천평화의집 운영위원장 등이 선정됐다. 이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20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됐다.

정혜숙 기자

“시대 소명 다하는 교불련 될 것”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에
최용준 교수 선임



13·14·15대 회장 맡아
불자교수 책임성 필요할 때

“이 시대는 다양한 학문간 소통과 교류, 사회 현상에 대한 실천방향 제시 등 교수들에게 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교수불자연합회는 교수사회에서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리더 양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제15대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으로 최용준 상지영서대 교수가 선출됐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열고 최용준 현 회장을 제1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최용준 회장은 13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14대 회장을 맡고 있다. 임기는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2013년 교불련 창립 25주년을 맞아 창립의 마음으로 돌아갈길 기원한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를 목표로 참립했습니다. 이러한 서원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최 회장은 2013년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 권역별로 교수불자간담회 개최 △불교학생동아리 지도교수 역량 강화 △불교학생동아리 확충 △불교 인접학문 학제 연구 지원 등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최용준 회장은 “자기 수행은 물론 불교와 제학문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실천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에 희망을 빛을 던져주는 공동체로 성장해나가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각국의 교수불자들과의 네트워크 확대와 이웃 종교와의 대화 등 활동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의 교수가 약 10만 명으로 불교에 호감을 갖는 교수님들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정작 실행활동과 불자 학생 지도 등 현장에서의 활동은 미약할 뿐입니다. 불자교수들의 활약이 절실 할 때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2 동국인의밤 성료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이연택)는 12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10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동국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이연택 총동창회 회장은 “중앙일보 평가 등에서 연속으로 순위가 오르는 등 동국대 발전에는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문들의 힘이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행사에 이어 ‘자랑스런 동국인상’ 시상식에서는 동국대 연구진흥본부장 공영대 박사가 대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생명의심전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형중호 삼공기어공업 회장, 최진식 심팩 회장, 개그맨 이경규 씨가 자랑스런 동국인상을 수상했다.

노덕현 기자

2013 2013(불기 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www.wdu.ac.kr
“그늘지고 소외된 곳, 그들의 삶에 세상의 온기와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전문가의 꿈을 채우세요
나누는 사랑과 실천하는 삶속에 희망이 존재하듯 당신안에도 수많은 가능성과 미래가 있습니다.